

# 정치·사회·경제 정상화 목소리… “더 나은 미래 열어주시길”

## 각계각층 환영 메시지

경총 “국민통합 이루어지길”  
무협 “대외통상 리스크 해소 기대”  
민주노총 “반노동정책 폐기해야”  
교총 “소통·공감 중심 정책 필요”

검찰에 몸담았던 세력의 시대는 저물고 새 시대가 열렸다. 시민들은 궤도를 이탈했던 것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라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처리해야 할 숙제다. 정치·사회·경제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이대통령의 임기 첫날부터 이미 봇물이다.

권영국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지난 3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축전을 띄우고, “내란 세력을 분명하게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광장의 열망을 받아 더 큰 민주주의를 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인천 계양구 자택 앞에서 시민이 건넨 책에 사인을 해 주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치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출신의 최민호 세종시장은 4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세종시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행정수도 완성과 광역교통망인 CTX 건설 등이 임기 내에 진정성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요 경제단체의 성명도 나왔다. 한

국무역협회는 실리 중심의 통상 전략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무협은 “급변하는 대외통상 질서에 신속히 대응해, 실리 중심의 통상협상 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새 정부가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5대 경제강국 도약을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국민통합을 이뤄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데 힘써 달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내란에 맞서 함께 싸운 다양한 정치세력과 협치하고 협력해 달라”며 “광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선 초당적 협력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내란 정부의 퇴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도 노사관계의 중재자이면서 당사자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시민 이제용(29) 씨는 “여성, 남성, 세대별로 싸우는 것에 지쳐간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정치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안석훈(55) 씨는 “집에서 놀고 있는 은둔 청년이 많다. 젊은 애들이 밖에 나가서 활기차게 일할 내수 중심의 일자리가 마련돼야 할 때”라고 했다.

김성욱(62) 씨는 “시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으로 모시려 해도 막상 입소하려 하니 1년 넘게 기다리라고만 한다. 노인은 점점 늘어나는데 시설 공급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성미(31) 씨도 “경기가 더 어려워졌다. 세 모녀

사건처럼 지원금을 제대로 못 받아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되풀이될까 우려스럽다”며 “전 정부에서 삭감한 복지예산을 정상화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계도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기반으로 한 화합과 통합의 교육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파와 이념을 넘어, 민주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시민과 교육공동체의 열망을 담은 교육 공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특히 “우리 교육은 인공지능, 기후위기, 양극화, 학령인구 감소 등 낯선 변화 속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은 도전에 응전해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을 준비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교권 보호,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대입제도 개선 등 10대 교육 의제를 이미 제안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래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그려나간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끝으로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은 소외됨 없이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평화와 번영, 화합의 시대를 여는 정부가 되기를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교사 단체도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권을 보호하며 학교를 살리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소통과 화합’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1순위로 꼽았다.

교총은 논평에서 “지금과 같은 교권 붕괴와 생활지도 무력화가 지속된다면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받을 수 없고, 교육의 미래 역시 위협받을 것”이라며 “이념이 아닌 소통과 공감 중심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교육기관, 교원은 교육자라는 원칙 아래 수업, 생활지도, 상담 등 본질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현재 교육 정책과 입법은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보다는 돌봄, 행정, 사법 기능을 떠넘기고 있다”며 “교사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김연세·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 희망이 꽃 피는 대한민국을 맞이합니다

모두의 꿈이 흔들림 없이 곧게 자라나  
저마다의 빛깔로 열매 맺는 대한민국  
희망이 어우러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  
신한이 함께 하겠습니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원드피트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리츠해보험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상인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을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